

제28호

주간농사정보

2022.07.11. ~ 07.17.



농촌진흥청에서는 금주에 꼭 실천해야 할 주요 농업기술 정보를
농업인들에게 매주 신속하게 제공하고 있습니다

|| 목 차 ||

제1장	농업정보		1
제2장	벼		6
제3장	밭 작 물		8
제4장	채 소		10
제5장	과 수		13
제6장	화 훼		16
제7장	특용작물		18
제8장	축 산		20
제9장	양 봉		25

요 약

분야	핵심기술 및 정보
농업 정보	• (기상) 기온은 평년(23.3~24.7℃)보다 높고, 강수량은 평년(49.7~101.4mm)과 비슷하거나 적겠음 * 북태평양 고기압의 영향을 주로 받아 덥고 습하겠음 • (저수율) 52.6% (평년 59.5%의 88.4%) / 7. 4. 기준) • (발가뭄: 7.4. 현황) 정상: 139개 시군(83%), 관심: 22개(13), 주의: 6개(4) * (7. 11. 67mm 강우 시) 정상: 167개 시군(100%)
벼	• (본답관리) 벼 이삭이 생기는 시기부터 팽 때까지 논물 2~4cm 깊이로 걸러대기 • (병해충관리) 신동진 등 도열병에 약한 품종은 전용약제로 적기 방제
밭작물	• (장마철관리) 배수로 깊게 설치 및 생육 불량 시 요소비료 엽면시비 • (콩) 흙덮기 작업을 김매기와 겸해 파종 후 30~40일경 실시
채소	• (고추) 고온기 이동식 스프링클러 등으로 토양 적습 유지 • (고랭지 배추·무) 생육 불량 시 요소 0.3%액 또는 4종 복합비료 엽면시비 • (시설채소) 호우 피해 후 햇빛이 강할 때 차광망을 설치해 일사피해 예방
과수	• (장마 및 태풍대비) 바람이 심한 과원은 방풍수나 방풍망 설치 • (병해충 방제) 겹무늬썩음병, 갈색무늬병, 잣빛무늬병 등 전용약제로 적기 방제
화훼	• (심비디움) 8월까지의 차광망을 설치하고 여름에는 아침저녁으로 2회 관수, 고온에 의한 꽃떨림 현상 및 광에 의한 일소현상 발생 주의 • (팔레놉시스) 고온다습 시 무름병(연부병) 발생할 수 있으니 환기에 주의
특작	• (인삼) 홍숙된 열매만을 골라 채종하고, 채종 종자는 체를 이용해 4mm 이상의 종자를 선별하여 사용함 • (오미자) 비 오기 전이나 비 온 직후에 웃거름을 주고, 살균제와 살충제를 혼합하여 점무늬, 탄저병, 각지벌레, 자벌레 등을 방제해줌 • (버섯) 높아진 온·습도로 인한 병해 발생에 주의하고, 수확이 완료된 재배사는 증기열 등으로 소독을 철저히 해줌
축산	• (장마대비) 호우피해 예방을 위한 전기·시설 안전점검 및 배수로 관리 • (고온기 피해예방) 적절한 축사 환경 유지 및 전기화재 예방 점검 • (사료작물) 하계사료작물(수수류 등)은 멸강충 피해 예방 예찰 및 방제 • (아프리카돼지열병) 의심축 발생 시 신고, 정기적 소독 및 차단방역 철저
양봉	• (사육관리) 꿀벌이 벌통 내 온도를 낮출 수 있도록 벌문에 급수기 설치 • (구왕교체 및 인공분봉) 교미상 조성 및 인공분봉 증식, 꿀벌응애류 및 부저병 집중 방제



제1장 농업정보

1 기상 상황 및 전망

○ 최근 1개월 (2022.6.2~6.29.)

- 기온은 22.4℃로 평년(21.5)보다 0.9℃ 높았음
- 강수량은 148.9mm로 평년(138.3)보다 10.6mm 많았음(107.7%)
- 일조시간은 156.6시간으로 평년(175.8)보다 19.2시간 적었음(89.1%)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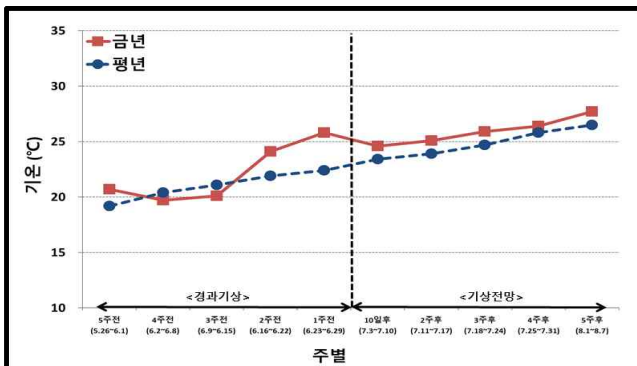
○ 1개월 전망 (2022.7.11.~8.7.)

(기상청 : 2022.6.30 11:00 기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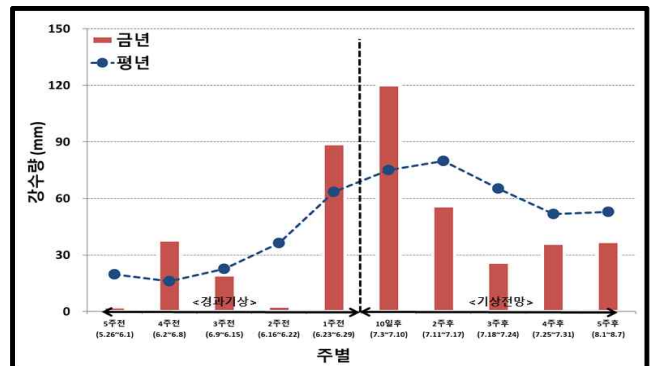
- 기온은 평년보다 높겠음 * 북태평양고기압의 영향을 주로 받아 덥고 습하겠고(7월 3~4주), 북태평양 가장자리에 들겠음(7월 5주, 8월 1주)
- 강수량은 평년과 비슷하거나 적겠음
- * 저기압의 영향을 받을 때가 있겠음(7월 5주, 8월 1주)

구 분	평 균 기 온	강 수 량
7월 3주 (7.11~7.17)	평년(23.3~24.7℃)보다 높음	평년(49.7~101.4mm)과 비슷하거나 적음
7월 4주 (7.18~7.24)	평년(24.5~26.1℃)보다 높음	평년(32.3~58.8mm)보다 적음
7월 5주 (7.25~7.31)	평년(25.3~26.7℃)과 비슷하거나 높음	평년(25.1~59.8mm)과 비슷하거나 적음
8월 1주 (8.1~8.7)	평년(25.5~27.1℃)보다 높음	평년(22.4~68.0mm)과 비슷하거나 적음

○ 최근 기상 경과와 전망



<기 온>



<강수량>

* 자료제공 : 국립농업과학원 심교문 연구관(063-238-2518)

2

저수율 및 강수량 현황

□ 전국 저수율 : 52.6% (평년 59.5%의 88.4%)

* 7. 4. 기준

(단 위 : %)

년도 \ 시도	전국	경기	강원	충북	충남	전북	전남	경북	경남	제주	인천
금년(A)	52.6	70.0	83.9	64.5	56.4	53.1	41.6	49.9	45.6	55.8	81.5
전주대비	(↑3.3)	(↑17.2)	(↑24.2)	(↑12.1)	(↑12.0)	(↓1.7)	(↓2.9)	(-)	(↑2.5)	(-)	(↑33.6)
평년(B)	59.5	56.7	64.4	58.9	57.6	57.1	59.3	61.9	65.0	52.1	57.2
평년대비 (A/B)	88.4	123.5	130.3	109.5	97.9	93.0	70.2	80.6	70.2	107.1	142.5

□ '22년 누적 강수량 : 350.0mm (평년 506.8mm의 69.1%)

(단 위 : mm)

년도 \ 월	1	2	3	4	5	6	7/4까 지	7/5이 후	8	9	10	11	12	합계
금년(A)	2.6	3.5	89.4	59.4	5.8	184.8	4.5							350.0
평년(B)	26.2	35.7	56.5	89.7	102.1	148.2	48.4	248.2	282.6	155.1	63.0	48.0	28.0	1,331.7
A/B(%)	9.9	9.8	158.2	66.2	5.7	124.7	9.3							26.3

○ 시도별 누적 강수량 ('22.1.1.~'22.7.4.)

(단 위 : mm)

년도 \ 시도	평균	경기	강원	충북	충남	전북	전남	경북	경남	제주	인천
금년(A)	350.0	525.3	439.4	321.9	344.4	361.9	292.1	223.0	353.2	484.5	512.0
평년(B)	506.8	421.9	456.3	458.6	463.7	497.7	606.8	441.5	647.2	775.0	390.1
A/B(%)	69.1	124.5	96.3	70.2	74.3	72.7	48.1	50.5	54.6	62.5	131.2

※ 최근 2개월 누적강수량('22.5.5~'22.7.4.)

(단 위 : mm)

년도 \ 시도	평균	경기	강원	충북	충남	전북	전남	경북	경남	제주	인천
금년(A)	194.7	390.8	300.7	185.8	210.5	200.6	95.1	101.7	149.2	216.7	393.2
평년(B)	287.7	261.5	262.5	270.7	272.5	280.1	331.6	250.2	352.9	384.9	245.5
A/B(%)	67.7	149.4	114.6	68.6	77.2	71.6	28.7	40.6	42.3	56.3	160.2

※ 출처 : 한국농어촌공사

* 자료제공 : 농촌진흥청 박명일 주무관(063-238-1047)



기상청

적극적인 행정, 극적인 변화
적극행정

주간 이상기후 감시·전망정보

기 상 청

2022년 6월 27일 11시 발표

※ 다음 주간 정보는 2022년 7월 4일 11시 발표

전망기간 : 2022년 7월 11일 ~ 8월 7일

이상저온 및 이상고온 전망

[주 최저기온] 1주 이상고온 발생 가능성이 높겠습니다.

[주 최고기온] 1주 이상고온 발생 가능성이 높겠습니다.

※ 이상기후 전망정보는 이상저온과 이상고온에 대한 발생가능성(확률) 전망을 나타내고, 발생가능성 백분율이 30% 이상과 미만일 경우 각각 발생가능성 '높음'과 '낮음'으로 제공합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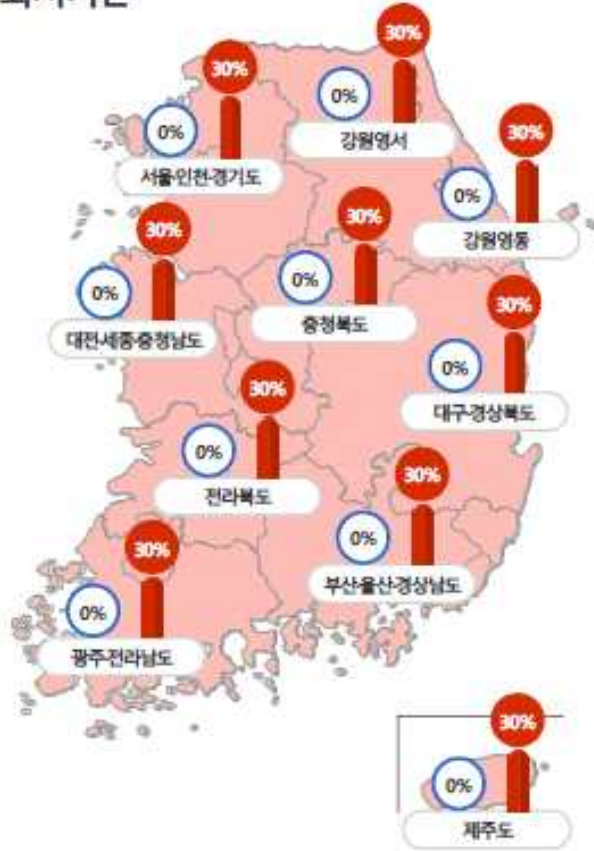
※ 이상기후는 기온, 강수량 등의 기후요소가 평년(1991 ~ 2020년)에 비해 현저히 높거나 낮은 수치를 나타내는 극한 현상으로 이상저온은 최저·최고기온 10퍼센타일 미만, 이상고온은 최저·최고기온 90퍼센타일 초과 범위로 정의하였습니다. (전국 평균 시 제주도 제외)

※ 퍼센타일은 평년 동일 기간의 기온을 비교하여 낮은 순서대로 몇 번째인지 나타내는 백분위수로 이상기후를 정의하는데 사용하였습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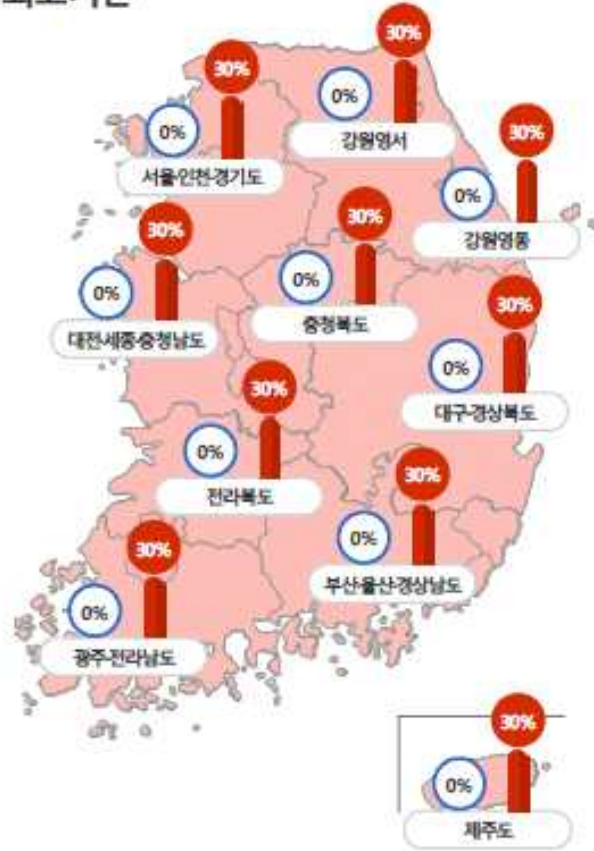


지역별 이상저온 및 이상고온 전망(%) (2022년 7월 11일 ~ 2022년 7월 17일)

최저기온



최고기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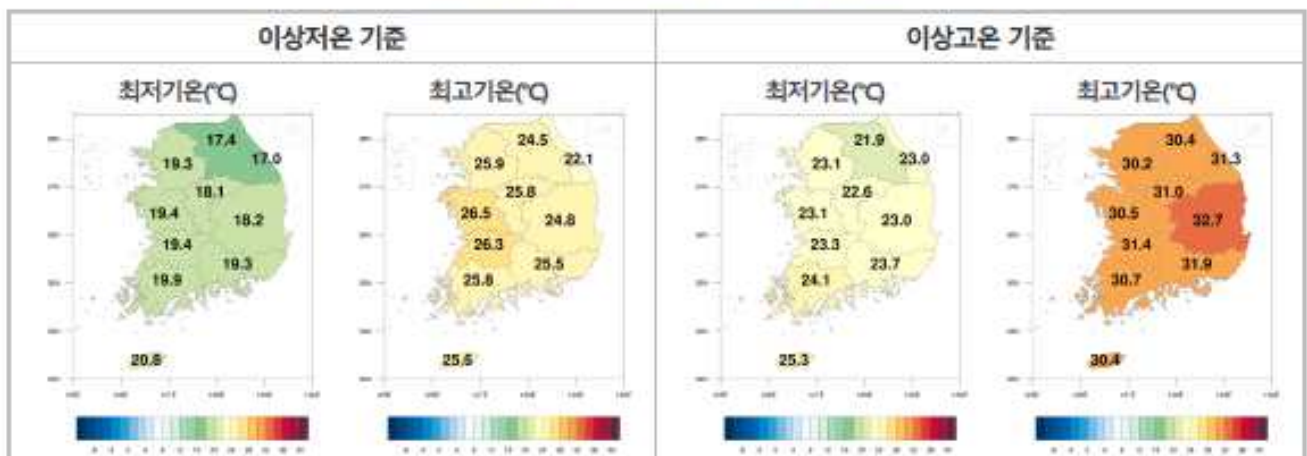


최저기온 이상저온 발생확률 이상고온 발생확률

최고기온 이상저온 발생확률 이상고온 발생확률

※ 이상저온과 이상고온의 발생가능성 백분율이 30% 이상인 경우, 각각 파란색과 빨강색으로 해당 지역에 채색하여 나타냅니다.

이상저온 및 이상고온 기준 분포도



3

밭가뭄 현황 · 전망 보고

□ 토양유효수분에 따른 전국 밭가뭄 현황 (7월 4일 기준, 167개 시군)

○ '정상' 139개 시군(83%), '관심' 22개(13%), '주의' 6개(4%) 단계

구분 (개)	해당 시군
관심 (22)	[강원] 삼척 [충북] 영동 [전남] 목포, 고흥, 장흥, 해남, 영암, 무안, 완도, 진도 [경북] 대구 달성, 포항, 김천, 상주, 경산, 의성, 청송, 칠곡 [경남] 의령, 함안, 거창, 합천
주의 (6)	[경북] 대구, 안동, 영양, 영덕, 예천, 울진
경계 (0)	없음
심각 (0)	없음

※ 정상(유효수분 60% 초과), 관심(45~60), 주의(30~45), 경계(15~30), 심각(15 이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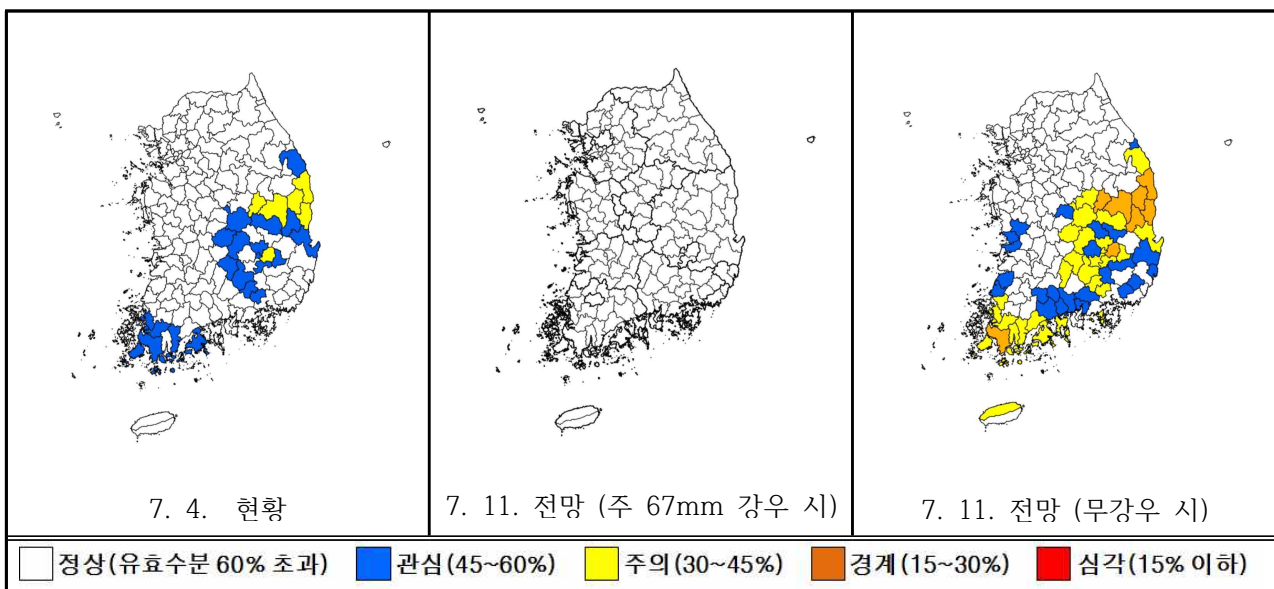
□ 기상예보에 따른 밭가뭄 전망 (7월 11일 기준)

* 67mm 강우 시

○ '정상' 167개로 전망

- (중기예보) 7일(목)~8일(금) 오전은 전국(경남권, 제주도 제외)에, 10일(일) 오후~11일(월)은 중부지방에 비가 오겠음.

□ 밭가뭄 지도



* 자료제공 : 국립농업과학원 황선아 연구사(063-238-2435)



제2장 벼

1

본답 관리

- 여름철 비가 오는 기간이 길 경우, 일조시간 부족으로 벼가 웃자라
연약해질 우려가 있으므로 잎도열병 등 병해충 및 시비 관리 철저
 - 잎도열병이 심하게 발생한 논은 이삭거름 줄 시기에 낮은 온도가
계속되거나 장마가 계속될 때는 칼리 비료만 사용함
 - 이삭거름은 이삭이 패기 전 전용 복합비료로 사용함
- * 일반재배 : 이삭 패기 25일 전 10~11kg/10a (N-K복합비료/18-0-18)
- * 최고품질 쌀 : 이삭 패기 15일 전 7~8kg/10a (N-K복합비료/18-0-18)
- 벼 이삭이 생기는 시기부터 켈 때까지 논물 2~4cm 깊이로 걸러
대기를 실시하여 뿌리의 활력을 높여 주도록 함

<벼 생육단계별 물 관리 요령>

생육기간	물 대는 요령	물 깊이(cm)	효 과
수잉기 (이삭이 생기는 시기)	물 걸러대기(이삭패기 전 30~ 이삭썩 때 3일 관수 2일 배수)	2~4	뿌리활력 증대, 유해물질 제거 촉진
출수기 (이삭이 나오는 시기)	보통으로 댈 것	3~4	꽃가루받이 촉진
등숙기 (이삭이 익는 시기)	물 걸러대기 (3일 관수 2일 배수)	2~3	여름 촉진, 뿌리기능 유지, 유해물질 제거
낙수기 (물 떼는 시기)	완전물떼기(이삭패기 후 30~35일 전.후)	0	품질 양호, 농작업 편리

※ 품종, 지대별 이앙적기 차이, 가뭄에 의한 이앙지연 등에 따라 생육단계에 차이가 있음

2

병해충 방제

- 열대거세미나방 어른벌레는 5월 17일에 제주도 옥수수 재배지에서 첫 포획되어 전년 대비 3주 정도 늦게 발견되었고, 발생지역도 적지만, 빠르면 5월 하순부터 애벌레로 인한 피해 발생이 우려됨
 - 작년 발생지역과 주 비래지역(충남, 전남·북, 경남·북, 제주 등)은 철저한 예찰이 필요하며, 발생 초기(애벌레 1~3령) 등록약제로 약액이 골고루 묻도록 충분히 살포하여 적기 방제 추진
 - 애벌레는 야행성이므로 해지고 난 후 방제가 가장 효과적
- 먹노린재는 논 근처 산기슭에서 어른벌레로 겨울을 난 뒤 6월 상·중순부터 모내기한 논으로 이동해 10월까지 피해를 주며, 논에 침입한 암컷이 알을 낳기 전인 7월 상순까지 예찰과 방제 철저
- 멸강나방은 어른벌레가 중국에서 날아와서 피해를 주는 비래해충으로 목초, 옥수수 등에 발생하며, 올해는 유입시기가 지난해와 비슷하지만 유입량은 매우 적음. 주로 6월 중하순에 애벌레에 의한 피해가 많지만 중부지역에서는 7월 중순까지도 피해가 발생함. 피해 최소화를 위해 조기 발견과 신속한 방제가 중요하므로 영농현장에서는 수시 예찰과 방제에 필요한 약제 준비가 필요함
 - 목초지나 옥수수 포장 등 기주식물 재배지역을 예찰하여 애벌레가 발견되면 등록 약제로 발생 초기에 방제함
- 잎도열병은 거름기가 많은 논에서 비가 자주 내리거나 장마가 지속되면 발생하며, 도열병에 약한 품종에서는 국지적인 강우로 인해 발생할 가능성 있으며 발생초기에 전용약제로 방제함
 - * 도열병에 약한 품종 : 화성벼 · 청아벼 등(중생종), 추청벼 · 일품벼 · 일미벼 · 새일미벼 · 신동진벼 · 호평벼 · 청담벼 · 진백벼 등(중만생종)

*** 자료제공 : 국립식량과학원 백동민 지도사(063-238-5362)**

 **맨 앞으로**



제3장 발 작 물

1

장마철 관리

- 습해를 받지 않도록 밭작물(두류, 서류, 유지작물)은 배수로를 깊게 설치
- 경사지는 토양 보호를 하고 참깨는 줄 지주를 설치하여 쓰러짐을 방지함
- 침수 시 조기 물 빼기 실시 및 흙 양금을 씻어주어 동화작용을 촉진함
- 쓰러진 포기는 땅이 굳어지기 전에 일으켜 세우기를 실시함
- 퇴수 후 뿌리가 노출된 곳은 흙덮기 작업 실시
- 생육이 불량한 포장은 요소비료(0.2%액) 엽면시비함
- 침수 후에는 병충해 방제에 노력함
- 피해가 심한 경우 추파, 보식, 다른 작물 재배 등을 고려함
- 참깨 돌립병, 시들음병, 땅콩 갈색무늬병 등 병해충을 방제함

2

콩

- 흙덮기 작업을 김매기와 겸하여 파종 후 30~40일경에 실시하되 늦어도 꽃이 피기 10일 전까지는 마치도록 함
 - 흙덮기를 하면 토양통기를 좋게 하고 뿌리 발생을 많게 하여 쓰러짐 방지와 13% 수량 증대 효과가 있음
- 밀식하였거나 거름기가 많은 포장 생육이 왕성해 웃자라 쓰러짐 피해의 우려가 있을 때는 본엽 5~7매(개화기 전) 때 순지르기를 하며 키가 작거나 늦게 심었을 경우는 순지르기를 생략함
- 콩 꼬투리가 생기고 콩알이 크는 시기에 노린재가 많이 발생하면 품질과 수량이 많이 떨어지게 되므로 적용약제로 방제함

3

참 깨

- 역병, 시들음병, 잎마름병 발생을 막기 위해 농약안전사용기준을 준수하여 예방위주로 적용약제를 살포

4

옥수수

- 단옥수수는 수염이 나온 후 20~25일, 초당옥수수는 23~25일쯤 수확하는 것이 당도와 맛을 고려할 때 가장 적합함
- 찰옥수수 수확적기는 여름 기간 동안의 온도에 따라 차이는 있으나 수염이 나온 후 25~27일이 적당함
- 옥수수는 수확 후 수분이 증발하면서 품질이 나빠지므로 이삭 자체의 온도가 낮고 수분도 많은 이른 아침에 수확

* 자료제공: 국립식량과학원 김정현 지도사(063-238-5377)

( 맨 앞으로)



제4장 채 소

1 고 추

- (장마 사후대책) 물 빼기, 뿌리 피해예방, 흙덮기, 엽면시비 등
- (주요 병해충) 침수피해 시 역병 탄저병 등 예방을 위해 배수 즉시 긴급방제
- (고온기 대책) 토양 적습 유지, 이랑 피복, 웃거름 시용, 적기수확 등

□ 장마대비 사후대책

- (물 빼기) 침수된 토양은 배수로 정비로 신속한 물 빼기 작업 실시
 - 침수 시 역병 등이 발생되기 쉬우므로 조기 배수실시
 - 다습 시에는 꽃과 열매가 쉽게 떨어짐
- (뿌리 피해예방) 도복된 고추를 신속히 일으켜 세움. 늦게 일으켜 세울 경우 뿌리가 끊어지는 피해 발생
- (흙덮기) 겉흙이 씻겨 내려간 포장은 흙덮기를 실시하여 뿌리 노출 방지
- (엽면시비) 요소 0.2%액이나 제4종 복합비료를 5~7일 간격 2~3회 살포
- (대파) 피해가 심한 포장은 작목 특성 및 출하상황에 따라 타 작물 대파
- (적기수확 및 건조) 수확한 고추는 화력건조기를 활용하여 부패방지
 - 건조기 온도를 55℃로 하여 48시간 건조 후 2~3일간 하우스 내 건조

□ 고온기 대책

- 이동식 스프링클러 등으로 토양 적습 유지
- 고온성 병해 및 진딧물, 총채벌레 등 바이러스 매개충 사전방제
- 웃거름은 제때 알맞은 양을 주되 너무 많이 주지 않도록 주의
- 점적관수 시설이 설치된 포장은 물비료 주기로 토양수분 유지 및 거름 주는 노력 절감, 고추 적기수확으로 후기 생육촉진 등

2 고랭지 배추·무

- (장마대비 사후대책) 침식이 심하지 않을 경우에는 흙으로 채우고 계곡침식일 경우 더 진전되지 않도록 부직포 설치
 - 토양유실과 함께 비료성분이 용탈되기 때문에 물이 빠진 후 추비시용
 - 생육불량 시 요소 0.3%액 또는 4종 복합비료 엽면시비
- ※ 노균병, 무름병, 뿌리마름병 등 방제 철저
- (석회결핍) 생육기 중 결핍증상이 나타날 가능성이 있으면 결구 초기에 엽화칼슘 0.3%액을 5일 간격으로 3회 정도 잎에 살포
- (뿌리혹병) 예방을 위해 적용약제를 정식 직전 토양 전면 혼화 처리하거나 아주심기 전 해당약제에 묘를 침지하여 사전 예방함
- (무름병) 매년 발생하는 포장은 2~3년 동안 돌려짓기, 균형시비하며, 약제방제는 5~6월 이후, 7~10일 간격으로 지체부까지 살포함

□ 장마대비 사후대책

- 피복재의 흙 양금 및 오물은 깨끗한 물로 세척하여 광 투과성 유지
- 손상된 피복재는 철거 후 새 비닐로 교체하여 다음 재배작물 준비
- 수경재배 시설이 침수 시 깨끗한 물로 씻은 후 반드시 소독함
 - ※ 베드소독 시 반드시 약액을 완전히 씻어낸 후 다음 재배작물 정식
- 침·관수 피해가 심하거나 병든 식물체는 조기에 제거하여 전염원 차단
- 경미한 피해를 받은 포장은 분무기나 호스를 이용 깨끗한 물로 씻은 후 적용약제를 신속히 살포하여 병해충 방제
- 배수로를 재정비, 쓰러진 포기 일으켜 세우기, 복주기 실시
- 호우피해 이후 햇빛이 강할 때는 차광망을 설치하여 일사피해 예방
- 피해를 받아 회복이 불가능한 포장은 철거 후 조기에 다음 작물 재배

* 자료제공 : 국립원예특작과학원 김채희 지도사(063-238-6423)

( 맨 앞으로)



제5장 과 수

1

장마 및 태풍대비

○ 사전대책

- 수분관리

- 외부에서 과원으로 물이 들어오지 않도록 주변 배수로 정비
- 배수로의 경사가 크고 긴 경우는 중간에 집수구를 설치 유속 감소
- 배수로의 풀을 베어주고 막힌 곳 등 정비

- 토양관리

- 경사지 과원은 짚, 산야초, 비닐 등으로 덮어 토양유실 방지
- 토양개량에 힘써 뿌리 분포를 넓고 깊게 해주어야 함

- 나무관리

- 바람이 심한 과원은 주 풍향 방향에 방풍수나 방풍망을 설치
- 방조망이나 구조물이 있는 과원은 나무에 피해가 미치지 않도록 점검

○ 사후대책

- 토양이 유실된 과수원

- 뿌리가 마르지 않도록 조기에 흙으로 채워 줌
- 복구가 어려운 과원은 재개원을 고려함

- 토사가 쌓인 과원

- 토사를 빨리 제거하고, 유기물이 많이 쌓인 과원은 시비량을 줄임

- 침수된 과원

- 배수로를 정비하여 물이 빨리 빠지도록 함

- 잎에 묻은 흙 양금을 씻어주고, 병든 과실은 제거하며 토양이 마르는 것을 기다려 얇게 경운함
- 도복, 가지절단 낙과 및 잎 파손 피해를 입은 나무
 - 도복된 땅이 마르기 전에 나무를 세워 고정해 주고 뿌리 주변에 흙을 채운 후 예취한 풀로 덮어줌
 - 부러진 가지는 절단면이 최소화되도록 자른 후 보호제를 발라줌
 - 상처부위로 2차 병원균 침입방지를 위하여 살균제를 살포
 - 장기 강우, 태풍에 의하여 잎이 많이 손상된 나무는 수세 회복을 위하여 요소(0.3%), 제4종 복합비료 등을 엽면시비
 - 낙과된 과실은 모아 묻거나 치워줌

2

병해충 방제

□ 사과 겹무늬썩음병

- 장마기 비산된 포자는 과실 감염의 주원인이 되며, 겹무늬썩음병 포자는 25~35℃ 범위에서 8시간 동안 과실 표면이 젖어있으면 100% 발아
- 발아된 포자의 과실 감염과 직접 관련된 부착기 형성률을 보면 30℃에서 8시간 습윤상태가 지속될 때 55%의 포자가 부착기 형성
- 생육 전반기까지는 보호성 약제 위주로 방제하고, 장마철부터는 철저히 치료용 약제 위주로 방제

□ 사과 갈색무늬병

- 갈색무늬병의 발생률은 16℃ 이하와 32℃ 이상에서는 잎에 수분 조건이 만족되어도 병이 발생되지 않는 반면, 16~28℃ 범위에서는 수분 존재시간이 길어질수록 발생량 증가
- 특히 24℃에서는 잎이 4시간 젖어있으면 병 발생이 가능하고 8시간 젖어있으면 50% 정도의 이병율을 보이므로 장마기 강우로 포자

비산량이 증가하고 일조량이 부족하여 날씨가 상대적으로 서늘하면 발생되기 쉬움

- 여름철 갈색무늬병이 다발생 될 수 있는 조건에서는 7월 상순부터 치료용 살균제 위주의 방제가 필요

□ 복숭아 잿빛무늬병

- 7월 고온 및 잦은 강우로 습도가 높아질 경우 다발생 우려
- 병원균은 토양이나 병든 과실 또는 나뭇가지의 이병부위에서 월동하여 자낭포자나 분생포자가 꽃이나 과실에 침입하여 피해를 줌

□ 포도 노균병

- 분생포자의 형성은 온도 22~24℃, 습도 95% 이상의 조건에서 가장 왕성하며 분생포자가 어린잎, 줄기 등에서 발아하여 유주자를 만들어 잎 표면이 젖어있을 때 헤엄쳐서 기공으로 침입하여 감염을 일으킴
- 장마기에는 지속적인 강우로 인하여 상대적으로 서늘한 날씨가 지속되면서 균사 생장이 정지되지 않고 계속될 수 있음
- 재배적으로는 전정 및 순치기로 통광 및 통풍을 좋게 하여 비 온 뒤 잎이 빨리 마르도록 관리
- 생육이 연약한 경우에 발병이 많으므로 질소과다, 토양수분의 과다를 피하고 토양을 짚 등으로 멀칭하여 병원균이 강우 시 튀어 오르지 못하도록 관리
- 약제방제는 이병성 품종의 경우는 개화 전부터 예방살포가 필요하고 장마철에 가장 감염이 심하므로 이 기간에 중점적으로 약제 살포

* 자료제공 : 국립원예특작과학원 박환규 지도사(063-238-6432)

( 맨 앞으로)



제6장 화 훼

1

여름철 심비디움 관리

- 국내 여름철 고온은 고사의 큰 원인이 되므로, 냉방 또는 여러 방법으로 생식생장을 지연시켜 꽃을 20일 이상 고온에 노출되지 않도록 하는 것이 필요함
- 6~8월까지의 차광망을 설치하고 여름을 넘긴 후에는 차광망을 걷어서 충분히 광선을 받게 하면 꽃이 잘 피고 병해도 예방됨
- 관수는 여름에는 아침저녁으로 2회, 여름 이외엔 1~2일에 1회가 좋으며 관수량은 화분 밑으로 흐를 정도가 되도록 충분히 줌
- 개화를 앞두고 원만한 화아분화 유도를 위해 6~8월까지의 양액의 질소 농도를 1/2~1/3 정도로 낮추어 주는 것이 바람직함
- 온도에 의한 꽃떨림 현상(Blasting, 화비현상)
 - 주로 여름철 고온기에 꽃눈이나 꽃대가 자라지 못하고 누렇게 변하면 죽는 증상으로 조생종 품종에서 많이 발생
 - 고온기인 여름철에 많이 발생하고 평지 재배에서 많이 발생함
 - 이를 방지하기 위해서 품종에 따라 차이는 있지만 주간 30℃ 이하, 야간 20℃ 이하에서 재배
- 광에 의한 일소현상(엽소현상)
 - 햇빛이 강한 조건에서는 잎이 두껍고 작아지면서 옅은 녹색이 되고 더욱 햇빛이 강해지면 잎이 처음에는 백색으로 되지만 심한 경우에는 검은색으로 변함
 - 심비디움의 경우 주로 여름철에 광을 많이 주기 위해 차광 없이 재배될 경우 종종 잎에 나타남

2

팔레놉시스 시비 및 병해

- 팔레놉시스 시비 효과는 온도에 영향을 받으며, 온도가 20℃ 이하인 조건에서는 시비의 효과가 분명하지 않은 경우가 있고, 30℃의 경우에는 시비농도에 의한 차이가 나타나고 적절한 농도가 인정됨
- 기온이 상승하는 7월 중순 이후가 되면 시비량에 비례하는 생육이 보이고 질소 흡수도 증가함
- 질소는 4~9월의 지속적인 시비효과가 크지만 실제로는 기온이 상승하기 전의 질소 시용의 효과가 7월 이후 생육량으로 나타남 (늦게까지 질소를 시용한 경우에는 화아의 발생이 지연됨)
- 고온 다습 시 무름병(연부병)이 발생할 수 있으므로 환기에 주의
 - 포기 전체에 발생하며, 발병초기에 잎에 수침상의 병반이 나타나서 점차 어두운색으로 연화되어 부패함
 - 잎의 뒷면으로 병원균이 침입한 경우 뒷면은 수침상으로 되지만 앞면(표면)은 밝은 황색으로 나타남
 - 감염주는 즉시 폐기하고 위생관리를 철저히 하며 주기적으로 방제약제를 살포함

* 자료제공 : 국립원예특작과학원 정은수 지도사(063-238-6441)

( 맨 앞으로)



제7장 특용작물

1 인삼 채종관리

- 인삼은 보통 3~4년생에서 1회 채종을 원칙으로 하며 4년근 수확을 목적으로 한 경우는 3년생에서 채종하고, 5~6년근 수확을 목적으로 한 경우에는 주로 4년생에서 채종함
 - 3년생에서 채종하면 채종량이 적고, 5년생에 채종하면 종자는 충실하나 인삼의 뿌리비대 발육이 억제되고 뿌리의 조직이 홍삼 제조시 내공, 내백이 많이 발생함
- 인삼 열매는 지역과 그 해 기온에 따라 채종시기가 다르며, 일반적으로 7월 초순~하순까지 채종함
 - 품종별 적정 채종 시기는 초·중순(연풍, 선풍, 청선), 중·하순(천량, 고평, 금풍, 선원, 선향, k-1), 하순(천풍, 선운) 임
- 채종 종자는 과육을 제거하고, 물에 1일 정도 담가 두었다가 꺼내 1일간 그늘에 말린 후 체로 4mm이상의 종자를 선별해서 사용



개화초기(5월 중순)



성숙초기(6월 중순)



성숙중기(7월 상순)



성숙후기(7월 중하순)

2

약용작물(오미자)

- 과실의 크기가 급속히 증가하고, 착색이 이루어지는 시기이므로 수령에 따라 요소 2.3~5.9kg/10a, 염화칼리 1.4~3.4kg을 7월 하순 비오기 전이나 비 온 직후 웃거름을 줌
- 식재 당년 흑색 PE 멀칭 포장은 고온기 지온이 상승하면 세균성 시들음병 증세가 나타나기도 하므로 여름철에는 멀칭을 벗겨주는 방법으로 관리함
- 7월 중·하순에 대상 병해충은 점무늬, 탄저병, 깍지벌레, 자벌레, 감보라노린재, 남방췌기나방 등을 적용 살균제와 살충제로 혼합 방제함
 - 오미자 열매가 익기 전 7월 하순까지 갈색날개매미충 등 돌발병 해충을 식물보호제 안전살포 기준을 준수하여 방제함

3

버섯 장마철 대비 관리

- 여름철 장맛비로 인해 온·습도가 높아지면 곰팡이병과 세균병 등에 의한 피해가 증가하므로 예방을 위한 환기관리에 유의
 - 환기는 생육습도가 80~90%가 유지될 수 있도록 비오는 시간을 피해 신선한 공기가 서서히 유입될 수 있도록 함
 - 환기량은 버섯의 형태에 따라 조절하는데 버섯 갓이 크고 줄기가 짧으면 환기량을 감소시키고, 반대일 경우 환기량을 증가 시켜줌
- 버섯 재배가 거의 끝나가는 시점이 되면 각종 병해충의 밀도가 증가하므로 마지막 주기의 버섯 수확을 완료하게 되면 재배사를 밀폐한 후 증기열 등으로 소독하여 병해충의 전염원을 차단해줌

* 자료제공 : 국립원예특작과학원 장면주 지도사(063-238-6452)

 맨 앞으로)



제8장 축 산

- (장마대비) 축사 주변 배수로 정비 및 전기·시설 설비 안전 점검
 - (사료작물) 하계 사료작물(수수류) 멸강충 예찰 및 방제
 - (아프리카돼지열병) 농장·근로자 소독 생활화 등 차단 방역활동 철저
- * 의심축 발생 시 가축방역기관 신고(1588-9060, 1588-4060)

1

장마철 대비 축사 관리

□ 사전대비

- (농장정비) 집중호우에 대비하여 축대가 무너지지 않도록 보수하고, 축사 주변, 운동장, 초지·사료포 등이 침수되지 않도록 배수로 정비
- (안전점검) 바람이나 비로 인한 누전 등 전기사고 예방을 위하여 축사 내 전기 안전점검을 실시하고, 사료는 비를 맞지 않는 곳으로 옮겨 안전하게 보관

□ 사후관리

- 농후사료와 풀사료는 곰팡이로 인한 변질과 부패는 없는지 자주 살피고 기온이 낮은 새벽이나 저녁에 조금씩 자주 먹여 관리
- 깨끗한 물과 함께 축종별 적절한 비타민과 광물질을 별도로 보충하여 가축 건강상태 면밀히 살핍
- 바람이 잘 통하도록 주변 장애물을 옮기고 송풍팬을 틀어 40~70% 범위 내 적정 습도가 유지될 수 있도록 관리
- 젖은 깔짚은 제거하고 충분한 양의 마른 깔짚을 깔아 축사 바닥이 젖어지지 않도록 관리

- 사육밀도를 낮추어 가축의 고온 스트레스를 줄이고, 소독시설 가동 점검 및 시설 파손여부를 점검하여 질병 전파 차단

* 기존 사육밀도 대비 평균 10~20% 낮춰 관리(돼지 90%, 닭 80% 수준)

- 침수된 장소의 물을 빼내고, 유기물 등을 깨끗하게 청소한 후 환경에 맞는 적절한 소독제를 살포하여 축사 및 가축 위생관리

2

고온기 가축 및 환경관리

- 일반적으로 27~30℃ 이상의 고온이 계속되면, 가축 체온 상승, 음수량 증가, 사료섭취량 감소하여 가축의 증체량 감소 및 번식 장애가 나타나기 시작하고 심하면 가축이 폐사함

- 국립축산과학원 축사로 누리집에서는 1시간 단위의 축종별 가축 더위지수와 혹서기 사양관리 기술 등을 제공하고 있으므로 활용

* 가축사육기상정보시스템 : 국립축산과학원 축사로 누리집 (chuksaro.nias.go.kr)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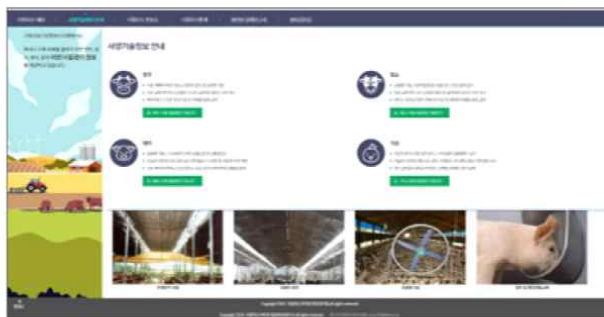
가축사육기상정보시스템 컴퓨터 화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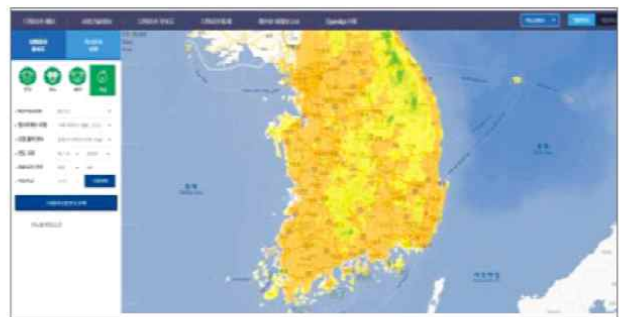
축사로(국립축산과학원 누리집)



가축사육기상정보시스템



여름철 사양관리정보 제공



미래 가축더위지수 전망

- 날씨가 더워짐에 따라 고온 스트레스로 가축의 생산성이 저하될 수 있으므로 고온스트레스 요인을 최소화할 수 있도록 송풍팬, 운동장 그늘막, 안개분무, 수조 등을 미리 점검하고 보수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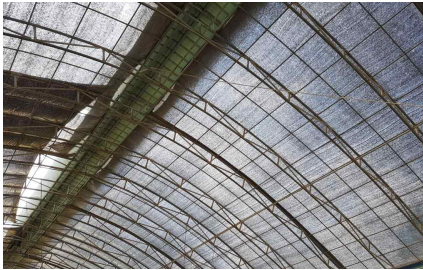
< 가축의 고온한계 온도 >

구 분	한육우	젖 소	돼 지	닭
적 온	10-20℃	5-20℃	15-25℃	16-24℃
고온한계온도	30℃	27℃	27℃	30℃

- 적온보다 높을 때 : 사료섭취량 감소로 인한 발육저하
- 고온 한계온도보다 높을 때 : 발육 및 번식장애, 질병발생, 폐사 등

- 태양 복사열에 대한 대책으로 축사천장에 단열보강하고 단열이 부족한 지붕에는 스프링클러 등으로 물을 뿌려주고 차광막을 설치하여 환경온도를 낮춤
- 여름철에는 물 섭취량 증가가 두드러지므로 깨끗하고 시원한 물을 충분히 먹을 수 있도록 급수량은 충분한지 확인하고 급수조는 항상 청결하게 유지
- 사료가 변질되지 않도록 적정량을 구입하고 건조하게 보관하며 사료조도 위생적으로 관리함
 - 사료빈 내부의 온도상승은 사료의 단백질 성분을 변성시키거나 비타민 파괴를 일으키고, 사료의 신선도를 떨어뜨리고 풍미를 변화시켜 사료섭취량을 저하시키는 원인이 될 수 있음
 - 사료빈의 내부 온도가 높아지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 사료빈 외벽에 열차단 단열재를 설치하거나 흰색 도료를 칠함
- 단위 면적당 적정 사육두수를 유지하고 축사를 청결히 하며 농장 안과 밖 정기적으로 소독 실시, 축사 주변 잡초와 물웅덩이를 제거하여 해충 발생 방지

- 환기팬에 먼지, 거미줄이 과다하게 조성되어 있을 경우 10% 이상의 성능 저하가 될 수 있으므로 주기적인 청소와 벨트 점검



차광막 설치



송풍팬 가동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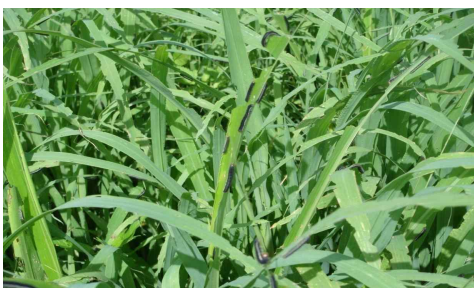


깨끗한 물통 관리

3

사료작물 관리 및 멸강나방 조기 신속 방제

- 옥수수의 잎이 6~7매 정도 나온 포장은 ha당 90~100kg의 질소 비료를 시비하는데 기계로 살포할 때는 옥수수 잎에 이슬이나 물기가 없을 때 작업 실시
- 멸강나방 암컷 1마리가 약 700개의 알을 산란, 성충 발견 후 15~20일이 지난 시기에 유충 발생
- 멸강충은 약제에 대한 내성이 커서 4령 애벌레 이상 되면 약제를 살포해도 쉽게 죽지 않기 때문에 조기 예찰을 통한 애벌레 발생 초기에 방제해야 함
- * 멸강충 : 멸강나방 유충으로 중국에서 비래, 5월 하순에서 6월 상순, 7월 중·하순 등 연간 1~2차례 발생하여 화본과 작물의 잎과 줄기에 피해를 줌
- 멸강충이 발생하였을 경우 사용기준에 따라 알맞은 것을 적용



유충피해



멸강충



멸강나방 성충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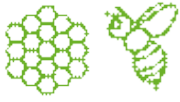
4

축사 전기설비 안전관리 화재 예방

- 농장 규모에 맞는 전력 사용
 - 전력 초과 예상 시 즉시 전력사용량 변경 및 유사시 대비 자가 발전기·비상발전기 확보
- 환풍기, 보온등, 온풍기 등 전기기구와 전선의 관리 철저
- 분전반 내부 및 노출 전선, 전기기계·기구의 먼지 제거 등 청결 유지
- 축사 내외부의 전선 피복상태 등 점검
 - 문어발식 배전 금지 및 모든 전선의 접속부는 견고히 접속
 - 노후 전선은 즉시 교체하고 방수용 전선을 사용하여 습기에 대비
 - 사용환경이 가혹한 곳에서는 내열성, 내후성 있는 전선으로 교체
 - 쥐 등에 의해 손상받을 우려가 있는 전선은 배관공사 실시
- 정기적인 안전 점검으로 안전한 전기 사용 생활화
 - 누전차단기는 월 1회 이상 작동시험
 - 파손된 플러그와 노후화된 콘센트 등 노후 전기시설 즉시 교체
 - 전열기구 관리를 철저히 하고 주변에 인화성 물질 제거
- 사용하지 않는 전기기구는 플러그를 뽑아두고 습하지 않도록 관리
- 감전사고 예방을 위하여 전기기계·기구에는 접지 시설 확인 및 시공
- 전기설비 점검과 개보수는 전문업체에 의뢰
- 축사 내 소화기 비치 및 소방차 진입로 확보
- 축사 화재 등 재해대비 가축재해보험 가입

* 자료제공 : 국립축산과학원 박현경 지도관(063-238-7201)
국립축산과학원 윤주영 지도사(063-238-7203)

( 맨 앞으로)



제9장 양 봉

1

양봉

□ 사육관리

- 7월부터는 꽃이 급격하게 줄어들고 고온으로 인한 스트레스를 받는 시기로 꿀벌은 벌통 내 온도를 낮추기 위해 많은 물을 필요로 함. 벌문에 급수기를 설치하면 효과적임.
- 고온으로 인한 유충발육 피해를 방지하기 위해 양봉사에 벌통을 배치하는 것이 좋으나, 양봉사가 없을 경우 차광막, 스티로폼 등을 이용하여 직사광선이 벌통에 직접 쏘이지 않도록 조치함.
- 밤나무꽃을 채밀한 직후로 꽃이 부족한 무밀기가 시작되는 시기로 인위적으로 당액을 조성(물:설탕 1:1)하여 공급함.
- 벌통 내 화분이 부족할 경우에는 화분떡을 공급하여 꿀벌 발육이 중단되지 않고 정상적으로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함.
- 특히 당액 공급할 때에는 해 질 무렵에 주어 밤사이 모두 소진될 수 있도록 하여 다음 날 당액 냄새로 인한 도봉이 발생하지 않도록 함.
- 봉군의 일벌들이 줄어드는 경우에는 벌집을 빼내어 벌과 벌집의 비율을 0.6~0.7(벌집면에 일벌들이 붙어 있는 비율) 정도로 조절해 줌



□ 구왕교체 및 인공분봉

- 구왕(여왕벌)을 교체하는 시기로 직접 구왕을 없애고 2일 후에 내검하여 왕대의 유무를 확인한 후에 신왕으로 교체하거나 출방 1일 전의 왕대를 유입함.
- 신왕은 우화한 지 9일 이상된 여왕을 이용하며, 철망유입법으로 유입하면 안전하게 교체할 수 있음.
- 신왕의 교미를 위해 6월 초순부터 수벌을 양성하여 관리하고, 처녀왕 양성은 6월 25일 이후 순차적으로 이충한 왕대를 출방 1일 전에 교미상에 유입함.

[여왕벌과 수벌의 발육기간과 교미적령일]

형태별	발육기간 (일)	교미적령일 (일)	계
수벌	24	12(10-20)	36
여왕벌	16	6(4-9)	22

- 교미상 조성은 교미전용 벌통을 이용할 경우에는 기존의 벌통에서 어린 벌을 수집하여 교미상에 나누어 담은 후 출방 1일전의 왕대를 넣어줌. 먹이로 당액이 아닌 연당(가루설탕:꿀 9:1)을 공급함.
- 일반 벌통을 이용할 경우에는 봉개된 번데기벌집 1장과 먹이벌집 1장을 위치하고 출방 1일 전의 왕대를 벌집 사이에 넣어주거나 혹은 벌집면에 공간을 확보하고 붙여 줌. 이때 벌집에는 알이나 3일 이내의 어린 유충이 없도록 함.



산란 신왕

왕대

전문교미상

철망유입

□ 로열젤리 생산 지속

- 7월 1주는 밤꿀이 끝나면서 무밀기와 온도 상승으로 인하여 로열젤리 생산량이 줄어드는 시기로 필요할 때 당액을 공급하여 가상의 유밀기 상태를 유지함.
- 이 시기는 단상군의 어린 유충 확보가 매우 중요하므로 당액과 화분떡을 충분히 공급하여 가상의 유밀기를 조성하여 여왕벌이 왕성하게 산란하게 유도함.

□ 꿀벌 기생성 응애류 및 부저병 관리

- 꿀벌응애류는 봉군관리의 난방제 해충으로 7월부터 본격적인 증식기로 적기에 방제를 하지 못하면 봉군을 폐사시킬 수 있는 해충임.
- 방제방법으로는 응애가 수벌 번데기를 선호하여 수벌집을 이용한 방제법과 약제 이용이 있으며, 약제 처리 시에는 안전 사용법을 충분히 숙지한 후에 이용하여 약해 등의 피해를 입지 않도록 함.
- 장마기에는 부저병 발생이 높아지는 시기이며 초기 방제를 소홀히 하면 전체 양봉장으로 급속하게 확산됨. 병이 확산되면 전체 봉군이 망실되므로 초기에 감염된 벌집은 벌통에서 빼내어 소각하거나 땅에 파묻음.



* 자료제공 : 국립농업과학원 강은진 연구사(063-238-2891)

( 맨 앞으로)



전라북도 전주시 덕진구 농생명로 300